

# 1907년 국제 ана키스트 회의에 러시아 ана키스트가 보낸 편지

심장중의강철

이 편지는 회의에서 낭독하기 위해 니콜라이 이그나치예비치 로그다예프[1] 동지에게 보내짐.

유럽에서 ана키즘이 다시 살아나고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순수한 ана키즘 이론"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깨달은 듯 이제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ана키즘이 이론적 장이 아닌 삶에서의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관념적인 추상적 개념에서 물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절망에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투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ана키즘의 새로운 경향은 노동자 인민의 생활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자함이고 다양하고 많은 그들의 삶의 대해 보다 정확한 지식을 알고자 함입니다.

사회혁명이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가? 우린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형태를 알기위하여 이번 암스테르담 회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ана키스트 동지들은 ана키즘이라는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사상을 전달하려고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ана키즘, 그리고 미래의 ана키즘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ана키스트들에게 보다 더 넓은 길을 개척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노동자들과 분리되지 말고 같이 함께 투쟁하라는 의미입니다.

"평화로운 혁명"[2]이라는 개량주의와 평화주의 혁명이란 환상은 이미 죽어 시체가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평화로운 혁명이란 미명아래 우린 투쟁의 활력을 잃어버렸고 국가의 억압에 저항할 혁명적인 저항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착취당하는 인민 대중들은 이제 "평화로운 혁명"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억압과 착취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해지는 유혹에 대중들은 깨어났습니다.

"평화 혁명"의 지지자들은 반세기 동안 "우린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을 남발하고 다녔습니다. 허나 대중은 "약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중의 사회적 영향력을 통한 혁명적이고 파괴적인 혁명만이 구 체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다라고 믿게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혁명의 관점에서 분명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러한 각성은 우리에게 큰 진전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중이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 대중이 행동한다는 것과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많은 희생과 실망의 대가로서 만들어진 이 진리로부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죽어있던 대중들의 혁명적인 투쟁과 혁명적인 정신을 부활시켜야합니다. 그들의 과학적인 "친구"들[3]덕분에 죽어버린 이 정신을 부활시켜야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며 우리에게 남겨진 거대한 과제입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적인 교육입니다.

이미 투쟁의 정신은 온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은 그들의 통치에 동요하고 투쟁의 정신을 깃삼고 질식시키던 오래된 멍에를 벗어던지려 합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특권계급은 임금노예제에 저항하는 노동계급의 열망을 필사적으로 무너뜨리려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제 주인과 노예의 충돌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승리를 위해서 그 어떠한 방법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노예를 죽이려하는 반면 노예는 그동안의 투쟁의 실패에 반성하고 다시 혁명의 재기를 위해 각을 재며 행동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미처 날뛰는 그들의 폭압에 맞서 우리 ана키스트들은 불타버린 옛 체제의 폐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린 쇠사슬을 끊는 "투쟁"을 노동자 계급에게 알려줘야합니다.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인이자 혁명가다!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인간의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부셔버리자!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포효가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활력이 되며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국제 ана키스트들이 러시아 ана키스트들의 투쟁을 배워가도록 합시다. 그들은 혁명가입니다! 이론에만 몰두하지 않고 현실의 삶에서도 투쟁하는! 그리고 이 투쟁은 현대 체제의 모든 포식자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아나키스트 투쟁 만세!

-아나키즘적 공산주의 연대

«БУРЕВЕСТНИК». 26 августа 1907 года. БУРЕВЕСТНИК: Орган русских анархистов-коммунистов. [Париж—Женева], 1907. ТА 6 —7.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С. 27.

[1] Николай Игнатьевич Рогдаев. 러시아 ана키즘적 공산주의 혁명가. 초기에 사회혁명당으로서 운동을 시작하였다가 1902년 해외에 이주할 때 ана키스트들과 친해지며 ана키즘적 공산주의로 사상을 바꿈. 이후 러시아로 귀환해 키예프, 드니프르등에 ана키스트 조직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1907년 국제 ана키스트 회의에서 생디칼리즘과 ана키즘 운동의 대해 회의문을 보내는 등 활발히 활동함. 러시아 혁명에선 볼셰비키와 연대하였기도 하였고 미국에서의 샤코와 반제티 살인에 대해 규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활동 중 Объединё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 СНК СССР에게 체포되었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되어 망명 중 사망하였다.

[2] 평화주의적 ана키스트(톨스토이등)나 개량주의적 ана키스트(푸르동같은 국가대체 ана키스트 혹은 정당주의 ана키스트등)을 의미함.

[3] 과학적 사회주의의 분파 중 하나인 "사회민주주의"를 뜻함.

<http://docs.historyrussia.org/ru/nodes/13960-pismo-amsterdamskomu-kongressu-poslannoe-tovarischu-n-roгдаevu-dlya-prochteniya-na-kongresse#mode/inspect/page/1/zoom/4>